

선거예측에서 투자방향까지...인류의 새 점성술

빅데이터 분석대로 미래는...

우종필 지음

2016년 11월 9일(한국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었다. CNN이나 뉴욕타임스 등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들은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를 당선자로 예측해왔다. 각종 여론조사 역시 힐러리가 1~6%포인트 우세하게 나왔다.



하지만 우종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7월 '트럼프 승리가 예상된다'고 한 언론에 기고를 했고, 대선 1주일 전에는 개인 홈페이지에 트럼프 당선과 선거인단 수, 득표율까지 다시 한번 예측했다. 우 교수는 어떤 근거로 홀로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을까? 그의 비장의 무기는 '구글 빅데이터'였다.

우 교수는 최근 펴낸 '빅데이터 분석대로 미래는 이루어진다'를 통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거예측 등 빅데이터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 얘기한다.

저자는 구글 트렌드(구글에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이용한 논문들을 읽고 연구하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글 트렌드 데이터로도 선거를 예측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기존 미국 대선 여론조사는 집 전화와 모바일 폰을 이용해 전체 유권자(2억3000만명) 가운데 0.00001%도 안 되는 1000명 남짓을



네티즌들은 궁금한 것을 구글과 같은 검색사이트에서 수시로 찾아본다. 축적된 방대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면 대통령 선거나 기업 매출액, 주가 등 예측이 가능하다. 매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계 규모의 정보통신 기술 전시회(CEBIT) 모습.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응답률이 낮고, 표본도 편향돼 있다.

1장에서는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 2016년 미국 대선과 한국 4·13 총선에 대한 결과를 재분석한다. 2장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업의 매출액 예측을 통해 주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구글 검색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들을 마케팅 시각에서 접근한다. 4장에서는 빅데이터의 정의와 문제, 한계점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 한국 선거도 예측할 수 있을까? 저자는 4·13 선거 등

다양한 선거들을 분석한다. 도구는 기존 선거예측과 다른 방식의 선거예측 분석틀(구조방정식 모델)이다. 이를 활용하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긍정적 요인은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심리(0.94)이고, 부정적 요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행태'(0.82)로 나타났다. 또한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 대기업의 매출액 예측과 주가 예측도 가능해진다. 물론 빅 데이터는 단점도 안고 있다. 미디어 보도에 따라 관련 검색이 늘어나 영동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빅 브라더' 논란도 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크다. 미국 IT분야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는 "21세기의 원유",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미래 10년 내 세상을 바꿀 핵심기술"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저자는 "빅 데이터는 앞으로 우리 인류의 새로운 점성술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있는 가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문 인력(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매일경제신문사·1만58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생을 버티게 하는 문장들**=지리산 권역에서 활동하는 시인 박두규의 산문집.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자연, 인간, 문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한다. 너무 이른 아침부터 너무 늦은 저녁까지, 오늘도 우리는 쉼 없이 하루를 견뎌내지만 그 시간들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낭패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세상에 우두커니 서 있는 외로운 당신에게 자연의 메시지를 전한다.
〈산지니·1만3000원〉

▲**독일 최고 석학 위르겐 코카의 자본주의의 역사**=자본주의의 역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전문가인 위르겐 코카 교수가 유럽의 중세 시대부터 오늘날 세계적인 확산에 이르기까지, 상업자본주의·산업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형태와 변화를 설명한다. 최근의 위기가 자본주의에 던지는 명암에 대해 질문하며,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북캠퍼스·1만3800원〉

▲**벚꽃이 피었다**=벚꽃을 모티브로, 사랑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을 선명하게 그려낸 벚꽃 테마 소설. 소설집에는 외롭고 서투른 남녀의 깨져버린 사랑을 그린 슬픈 밤 벚꽃의 이야기, 사람의 마음을 바꿀 핵심기술"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저자는 "빅 데이터는 앞으로 우리 인류의 새로운 점성술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있는 가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문 인력(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매일경제신문사·1만58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아이젠하워**=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은 어둡고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



해 있었다. 미국 국민은 검증된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고, 그들이 제34대 대통령으로 선택한 인물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였다. 현재 우리는 국내의 문제로 혼란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 요즘과 같은 진정한 리더가 부재한 정치 혼돈, 분열의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라 아이젠하워다. 〈플래닛미디어·1만9800원〉

▲**선불교의 철학**=재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선불교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탐구, 소개하는 철학 저술이다. 선불교는 일반적으로 '말과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진리를 깨달으며(不立文字 教外別傳, 가르침에 기대지 않고 좌선에 의해 직접 인간의 마음을 직관함으로써 자신의 고수(直指人心, 見性成佛)'고 정의된다. 그래서 선불교는 언어를 의심하고 개념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학사·1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어린이를 위한 법이란 무엇인가**=사회 수업 시간에 '법'에 대해 모둠별 조사보고서를 써야 하는 동학년 고민 끝에 변호사인 삼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법을 만드는 과정, 학교폭력예방법, 저작권법, 아동복지법 등에 대해 알아가며, 법은 더불어 살기 위한 약속임을 알게 된다. 〈주니어김영사·9800원〉

▲**아홉 살 마음 사전**=마음을 표현하는 80개의 단어를 담은 책.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을 그림과 함께 사전 형태로 소개한다. 구체적이고 실감 나는 그림과 친절한 설명을 통해 다양한 감정 표현을 익힘으로써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창비·1만1000원〉

▲**부모님 제대로 키우는 법**=부모와 아이가 입장이 바뀌어 아이가 부모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키우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익살맞은 그림책. 한창 말쑥부리고 제멋대로



인 시기의 아이들은 감각적인 태도로 사사건건 잔소리만 하는 부모님이 야속하지만 않다. 때론 '엄마 아빠와 내가 바뀐다면 어떻게?'라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들봄·1만5000원〉

▲**무지개 물고기와 특별한 친구**=스테디셀러 '무지개 물고기'의 저력이 담긴 7번째 책.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르쿠스 피스터는 이번 작품에서도 아기 무지개 물고기와 엄마 무지개 물고기를 통해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따뜻하게 보여 준다. 〈시공주니어·1만3000원〉

힘드시죠? 이젠 시로 위로 받으세요

시가 나를 안아준다

신현림 지음

"많이 힘들고 지치셨나요? 이젠 시(詩)로 위로받으세요." 신현림 시인은 시가 주는 위안의 힘을 믿는다. 저자는 "자신의 영혼을 만나거나, 힘들 때 영혼을 쉬게 하는 컴퓨터 시"라고 말한다.

이번에 신 시인이 펴낸 '시가 나를 안아준다'는 제목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은은하게 비춰준다. 단순히 위로와 힐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장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는 시와 그림을 엮었다. 특히 오래도록 곁에 두고서 들춰볼 수 있는 '베갯머리 시'를 표방한다. 고티, 탁넛한, 니체 등의 시를 비롯해 윤동주, 신동엽, 이성복, 정호승 등 우리나라 대표 시인들의 시도 수록돼 있다. 그렇다고 단선적인 잠언 성격의 시도 아니고, 난해하거나 어려운 시도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되 울림이 있는 시를 담았다.

'베갯머리 시(pillow poems)'는 곁에 두고 잠들기 전 매일 조금씩 읽어보는 시도. 작금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과 일상의 스트레스는 수면마저 위협하고 있다. 저자는 "아무리 애써도 잠이 오지 않을 때, 시 쓰는 법을 배웠다"고 회고하는데, 실제로 시를 읽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하게 된다.

수록된 시들은 대부분 '밤, 고독, 사랑, 감사, 희망의 함'을 주제로 한다. 역설적으로 외롭고 불안한 나라부터 벗어

나는 계기가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길임을 보여준다. 책에는 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외국 화가들의 그림도 함께 수록돼 있어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이 모진 시대에/그대, 무감각해지지 말아/ 굳어버린 사람들은 부서지고/ 날카로운 사람들은 찌르지만/ 그리고 바로 깨어버리지// (중략)이 침묵의 시대에/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려 해/ 나뭇가지에서는 초록빛이 터져나온다/ 우리는 그걸 모두에게 보이려 해/ 그러면 사람들도 알게 되겠지" (볼프 비어만 '격려')
〈판미동·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